

원희룡 장관, “UAM법, 세계에서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것”
- 22일 「제1회 미래 항공전략 포럼」에서 ‘UAM 어떻게 준비 중인가’ 특강 -
- 실증 우수기업 인센티브, 4월 수도권 실증노선 발표등 정책 소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2일(수)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주최한 「제1회 미래 항공전략 포럼」에 참석하여, “'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현황”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 약 10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 - 포럼은 항공·우주분야 산·학·연 최고위층 리더들이 모여, 미래 항공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, 한국항공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신설된 「항공우주최고위과정(Aerospace Advanced Business Program)」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- 포럼의 기조 특별강연을 맡은 원 장관은 “UAM을 통해 안전·소음 등의 문제로 항공 분야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도심 속 하늘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”면서, '25년 UAM 상용화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정보들을 최대한 담아보려 노력했다며 특강의 문을 열었다.
- 먼저, 원 장관은 “성공적인 UAM 상용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안전하지 않으면 날리지 않겠다는 각오로, 올해 8월부터 시작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 - 특히, “우수한 성적으로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에게는 '25년 상용화 사업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, 4월 도심지 실증을 위해 한강을 따라 김포~잠실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도 발표할 계획”이라고 언급하여,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.

- 또한, 원 장관은 “新산업 초기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, 규제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, 세계에서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UAM법도 조속히 제정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특히, “그간 정부의 영역이었던 UAM 관제, 버티포트 운영사업도 민간에 개방하고, 기존 항공 4개 법령 적용이 최소화되는 실증·시범사업구역도 제도화하여 민간이 마음껏 UAM을 비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” 라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UAM 기체인증 가이드,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민간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세부 규정들은 연내 마련하겠다” 라고 덧붙였다.
- 이외에도 원 장관은 AI 교통관리, 3D 스캐닝 정비 등 UAM 핵심기술 R&D 계획, 선도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동향 및 민·관 소통체계인 UAM Team Korea 확대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우리나라 실증사업에 Joby(미국), Beta(미국), Vertical(영국), Autoflight(중국·독일), Jaunt(캐나다) 등 전 세계의 우수한 기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, NASA* 등 전 세계에서조차 주목하고 있는 만큼,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해외 어디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” 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* 美항공우주국,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
- “120년 전에 12초간 36m를 날았던 라이트 형제가 인류의 생활범위를 하늘로 넓혔듯이, UAM은 도심 속 모빌리티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 새롭고 신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,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.

2023. 3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